

조선형 실 비취 산책 14

늙지 않는 노인 촌

미국 캘리포니아 남쪽, 바다 근처에 있는 Leisure World Seal Beach 는 늙지 않는 노인 촌 이다. 600 에이 커(acres)의 넓은 공간, 공원 같은 환경에 6,600 세대가 살고 있는 곳, 골프 코스, 수영장, 노천극장, 클럽 하우스가 6 개, 200 여 개의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고, 마을 중앙에는 좋은 의료 시설이 있으며, 취미와 배움으로 바빠 살수 있는 곳, 리저 월드 실 비취는 노인들의 천국 이다.

8 월 20 일 리저 월드 실 비취 노천극장에서 한인 합창단이 공연을 했다. 저녁 8 시에 있었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입은 여성,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 육십여명이 무대위로 올라 왔다. 나는 분주히 내 처를 찾았다. 첫 줄 왼쪽에 앉아 있었다. 무대 앞으로 지휘자가 나왔다. 백경환 목사, 흰 머리에, 지휘봉이 움직이며 음악이 시작 됐다. 합창 단원의 연령은 65 세부터 90 세, 멋진 화음이 나오는 것이 신기 했다.

노천극장은 천여 명을 수용 할 수 있다. 처음엔 노천극장이 반이 비어 있었다. 공연이 시작 되자 객석의 절반 이상, 오백 여명이 모여 들었다. 박현주 권사님이 공연 장 입구에서 분주히 오는 사람들을 맞이 한다.

Welcome to Korean American Chorus

Here is a program, enjoy.

한국 사람들에겐, “ 어서 오세요 ” “ 오늘 저녁 프로그램 입니다 ” 작은 키에 연약한 몸으로 공연을 돕기에 분주 하다. 박현주 권사는 80 중순, 몇 년 전 뇌졸중으로 고생 하시다가, 여기 실비취로 이사온후, 완전히 건강을 찾았다. 남편 박윤수 박사를 도우는 일에 정성을 다 쏟는다. 박 박사는 90 이 가까운 연세에, 합창단을 재 구성 하고, 모금을 하며, 합창단 단원, 80 엽명을 확보한 단장이다. 박윤수 박사는, 너무 할 일이 많아 늙을 시간이 없다고 한다.

내 처와 나는 아침 5 시면 일어 난다. 6 시에 체육관에서 운동 하고, 오전엔 취미 활동, 점심은 친구들과 함께 한다. 오후에는 쉬고 저녁에는 걷고, 골프장 근처에 있는 의자에 앉아 세상 돌아 가는 이야기를 하고 집에 온다. 그날 그날의 삶을 즐긴다.

둘째 주 목요일엔 고전음악 감상 모임이 있다. 리저 월드에 오래 사시고, 봉사생활을 많이 해 온 그레스 김 여사가 조직한 모임이다. 은퇴한 성형외과 의사 로버트 정과 큰 회사 임원으로 은퇴 한 켄 정이 고전 음악을 해설 한다. 정 박사는 80 중반, 멋진 유머로 해설 한다. 베토벤의 월광곡을 이렇게 설명 한다.

베토벤이 연인을 생각 하며,

달 빛의 흐름을 음 울로 표현한 곡,
그러나, 그 연인이 누군지, 아직도 밝혀 지지 않은,
월광곡입니다. 들어 보세요.

베토벤의 교향곡 “운명”을 이렇게 설명 한다. “여러 분들, 베토벤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 이라는 것 다 알고 있지요? 그러나 왜 그런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전해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역경에서도 멋진 고전 음악을 대표하는 베토벤, 그의 교향악 “운명”을 감상해 봅시다”. 정박사는 유모어가 섞인 어조로 고전 음악들을 설명 해 줍니다.

리저 월드엔 200 여 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여기 주민은 누구 든지, 무료로 참여 할 수 있다. 황혼의 행복에 관해 다시 생각 하게 한다. 건강을 지키며, 호기 심을 일으키며, 알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추구 하는 것이 황혼의 행복이 아닌가 생각 한다. 호기 심이 원동력이 되어 과학이 발전 되었고, 기술이 발달 되며, 오늘의 문명 사회가 이루어 지지 않았는가?.

이 호기심이 또한 내 황혼의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있다.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것 배울 수 있고, 리저 월드의 식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아 내고 생태 계를 탐구 하는 일, 자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 심정, 반항의 신앙에서 순종의 믿음으로 변화는 상태, 이러한 내 호기심을 풀어주며 새로운 것을 알게 하는 노력이 나를 행복 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80 이 넘어,” 왜 “ 라는 질문이 더욱 늘어 간다. 대부분 삶에 관한 호기심이다. 호기 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간의 제약 없이 호기심을 충족 하는 배움이 나를 행복 하게 하여준다. 여기 리저 월드 실비치는 내 황혼의 행복을 충족 시켜 주는 이상 촌이라는 생각으로 또 하루를 기다린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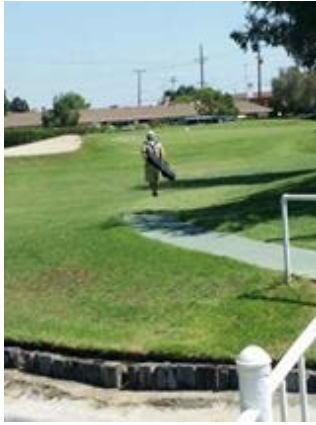
2016 년 9 월 7

조 선형(Seon H. Cho)

1959 년 한국외국어대 영어학과 졸업/63 년 美 템플대 석사(공업 경영)/65 년 미 펜실바니아대 (UPen) 와튼스쿨 MBA/70 년 美 피츠버그대 박사(컴퓨터과학)/67-73 년 美 피츠버그교육구 전산실장/73-79 년 펜실바니아주정부 문교부국장,차관/79-81 년 매사추세츠 주립대 운영담당 부총장/81-99 년 美 Wang Laboratories 부사장으로 입사, 이후 18 년간 한국,일본 현지법인 사장을 역임/71-75 년 美 피츠버그대 교수/75-79 년 美 펜실바니아대 헤리스버그분교 교수 /79-81 년 美 벤들리대 대학원 교수/93-04 년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00 년~현재 (주)프리씨이오 Founding Partner/저서: <소프트웨어 공학>, <정보 기술의 기반구조 구축과 활용>, <정보화사회의 길목에 서서> 등/이메일: seon.cho@hotmail.com

..... 끝





양식의 맨 위

Boost Post

25 people reached

